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 14일까지 연장...18일 합동추모제

엔진 등 주요 부품 정밀 조사...사고기 잔해 기상 여건 맞춰 조사 유류품 1000여점 10일까지 보관...8일까지 전국 공항시설 점검 무안공항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24시간 대응 체계 유지키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는 합동추모제가 열린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기체의 비행 기록장치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에 전달하고, 엔진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 대표는 “오는 18일 무안국제공항에서 합동추모제를 열겠다”고 6일 밝혔다. 추모제 참석 인원과 범위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에 앞서 유가족들은 오는 11일 낮 12시 무안공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추모제 세부 계획과 유가족 단체 명칭 변경, 추후 유가족 단체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희생자 179명의 시신은 모두 유가족에게 인도돼 장례 절차를 치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수습 과정에서 추가 발견된 희생자의 시신 일부는 오는 18일까지 신원을 확인해 유가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희생자 시신 일부가 추가 발견될 경우 유가족 의사에 따라 인도하거나 합동 화장할 방침이다.

희생자 유류품은 총 1000여점 수거됐으며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소유자가 확인된 유류품 244점이 유가족에게 인도됐다. 유류품 중 720여점은 아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유류품 보관소는 오는 10일까지 운영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해 유가족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희생자의 차량 또한 총 21대 인도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중 9대가 인도 완료됐다.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 기간은 사고 조사 기간을 고려해 당초 7일 새벽 5시에서 14일 새벽 5시까지

로 일주일 연장됐다.

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무안공항 격납고 내에서 엔진, 조종석 상부 패널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꼬리 날개 등 사고 현장에 남아 있는 사고기 잔해에 대한 조사는 강풍, 강설 등 기상 여건에 맞춰 병행 추진된다.

사고기 블랙박스 중 연결장치가 일부 유실된 비행기록장치(FDR)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교통안전위원회(NTSB)로 전달됐으며,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는 녹취록 작성이 완료됐다.

오는 8일까지는 인천, 김포, 제주 등 전국 13개 공항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B737-800)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정비이력 적정성, 비행전후 점검실태, 운항 및 정비기록관리, 정비인력 관리 등 점검은 오는 10일까지 이어진다.

장례 절차가 끝난 유족도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무안공항 관리동 3층에 마련된 재난피해자 통합 지원센터는 당분간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유류품 인도 지원, 항공보험 관련 절차 안내, 법률 상담 등 지원을 계속한다.

유가족들을 위해 무안공항 내 설치됐던 텐트형 재난구호 쉼터(임시 숙소)는 방역·정소 작업을 거친 뒤 공항 2층에 일부 남겨 두고, 사용 신청을 받아 유가족에게 지속 제공한다.

광주시, 전남도 등이 운영하는 합동분향소는 당초 국가예도기간인 지난 4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으나 유가족 의사에 따라 연장 운영되고 있다. 운영 종료 시점은 추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정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6일 희생자가 생전 다녔던 광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결식을 치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제주항공 정비사의 폭로

“코로나 이후 숙련 정비사 부족으로 업무 과중”

제주항공 전 정비사가 제주항공 정비사들이 코로나 이후 인력부족으로 업무과중을 겪었다고 폭로했다.

지난 4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저는 제주항공 정비사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업로드됐다.

해당 커뮤니티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인종해야만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다.

본인을 오랜 기간 제주항공에서 일했던 항공 정비사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이번 사고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이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규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제주항공의 항공정비사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항공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돼 노조 설립과 파업이 제한돼 부당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간담회와 소통창구를 통해 직원들의 고충을 듣겠다고 했지만 비용이 드는 인력충원과 처우개선과 같은 핵심 문제는 여전히 묵살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항공정비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숙련된 정비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경력직

채용 공고에도 시장에 정비사가 없어 인턴 정비사들로 채우려 해도 과도한 업무로 이들과 조화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으로 ‘무리한 운항계획에 따른 정비 소홀’이 언급되는데 대해선 “다른 회사에 비해 운항 시간이 긴 것은 사실이지만 정비를 대충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한편,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상반기 항공사 지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해 상반기 운항한 5만2883편 가운데 536편(국내선 344편, 국제선 192편)에서 정비를 이유로 지연이 빚어졌다.

이런 수치는 작년 상반기 운항한 10곳의 국내 항공사 가운데 가장 높다. 전체 운항 편수가 더 많았던 대한항공(422편)을 뛰어넘은 것은 물론, 경쟁 저비용항공(LCC)인 티웨이항공(315편), 진에어(243편), 에어부산(227편) 등을 크게 웃돌았다. 정비 지연율은 1.01%(국내선 1.26%, 국제선 0.75%)로, 전체 평균 0.64%(국내선 0.61%, 국제선 0.68%)보다 0.37%포인트 높았다. /김다인 기자 kdi@

잔인한 조롱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모욕·편향 온라인 게시글 126건 수사 속도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모욕·편향하는 온라인 게시글 126건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인다.

경찰 관계자는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기자간담회에서 “5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모욕한 게시글 126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지난 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희생자 유족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린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참사 관련 뉴스를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작성했다”고 진술했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압수영장 5건을 집행하고 51건을 신청하는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추적할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법무부 직원이 ‘제주항공 참사는 우리의 소행’이라며 폭탄 테러 예고 이메일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일본 경찰에 협조를 요청, 국제 공조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메일은 일본의 한 변호사 명의로 발송됐으며, 한국 도심 곳곳에서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식민지배·독재 옹호 전남대 교수 사퇴를”

전남대민주동우회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일제 식민지배와 독재를 옹호했다”며 전남대 A교수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남대 민주동우회 등 151개 시민단체(단체)는 6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는 식민사관을 가진 A교수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한국 경제사 개관’은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한국의 민주화를 폄하하는 내용”이라며 “특히 저자인 A교수가 민주화 성지인 광주, 광주민중항쟁의 시발지인 전남대에 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A교수가 저서를 통해 ‘일제 식민지 시절 한국은 빠른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독립 이후 일본과 경제 관계가 단절된 이후 한국의 산업 생산은 급격히 위축됐다’며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폈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단체는 또 “A교수는 ‘1987년 민주화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가능케 했던 제도적 틀을 무너뜨렸고, 그 결과 수출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윤석열 정권이 뉴라이트를 주요 공직에 진출시키는 과정에서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민족의 자존을 훼손하는 학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A교수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장혜원 기자 hey1@

함께하는 100년농협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 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8%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기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